

운무에 살짝 드러난 웅장함...지친 심신 어루만지다

키우리산악회와 함께 떠난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선 김은철씨.

지리산 천왕봉! 나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다. 27년 전 대학 4학년 졸업 무렵, 친구들과 1박2일 일정으로 천왕봉을 오르던 중 첫날 세석평전에서 근육경련으로 쓰러져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해 들쳐 업혀 숙소 세석산장에 들어갔던 뼈아픈 기억. 키우리에서 그 천왕봉을 간담다. 불현듯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래도 산이 좋아 망설임과 불안감을 뒤로 한 채 토요일(9일) 산행만을 기다렸다. 전날 잠자리에 들었지만 불안감과 기대감이 겹쳐 잠을 설친 채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버스에 올랐다. 새벽까지 비가 내려 날씨에 신경이 쓰였지만, 오히려 "이런 날씨가 높은 산을 오르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산악대장의 이야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날씨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천왕봉에 올라 갈 수 있을지 걱정 앞섰고 있던 때 총무님이 다가와 "산행기를 작성해 보라"고 권했다. 애써 거절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산행기를 쓴다는 목적으로 기쁨으로 천왕봉에 올라야겠다는 오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웬일인지 발목에 통증이 느껴지며 다시금 불안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27년 만에 다시찾은 천왕봉 설렘 한가득

그래도 산행을 마치는 마음을 다잡고, 선두대열에 발걸음을 함께 했다. 10분여를 올라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니 천왕봉 아래 2km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법계사 셔틀버스가 우리를 유혹한다.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산행기를 써야 된다'는 일념 하에 담대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등산로를 따라 출발했다. 그러나 그제 나에게는 독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통천길 초입부터 좁고 바위가 많은데다 어제까지 비가 내려서인지 상당히 미끄러웠지만 계곡의 물소리와 나의 거친 숨소리를 융화시켜 가며 기운차게 오를 수 있었다. 구름다리를 건너니 바로 장터목과 법계사 갈림길이 나왔고 바로 본격적인 산행을 위해 법계사 길로 들어섰더니 급경사 바위길이 나온다. 천왕봉과의 최단 산행거리라 급경사 길을 예상했기에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묵묵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계사까지는 힘들고 천왕봉까지는 매우 힘들다는 산악인들의 평이 있듯이 망파위를 지나칠 때쯤 나의 페이스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 같았다. 역시 사람은 참 간소한 동물인 걸 새삼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다. 힘이 드니 자꾸 법계사 셔틀버스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왜 남들처럼 편한 방법으로 산행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긍정마인드와 자신감은 어느 새 눈 녹듯이 사라지고 후회와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다행히 5분정도 더 오르니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셔틀버스를 타고 갔던 동료들이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곳은 바로 법계사 바로 밑 로타리 대피소.



키우리산악회 회원들이 지리산 법계사로 들어가는 정문에서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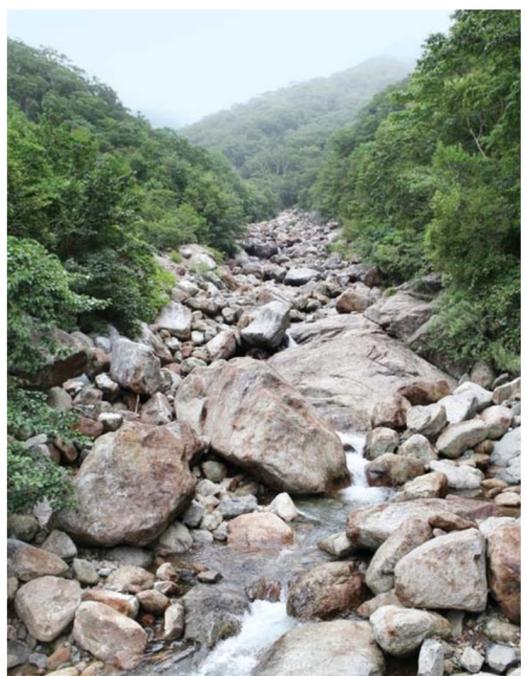


천왕봉 정상에 오른 회원들이 하산하면서 물안개가 긴장터목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의 몸 상태를 고려해 식수점에서 시원하게 물 한 모금 마시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출발했지만 그 순간뿐이었다. 급경사 암반길이 나를 기다렸고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나를 앞질러 간다. 개선문도 지나고 앞으로 400m만 가면 드디어 천왕봉이었는데 "잠시 쉬자"는 소리에 멈춰서는 순간 다리가 이상해졌다. 막대기가 돼버린 듯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큰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 먹던 힘까지 짜내며 다리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남강발원지라는 천왕샘에서 이 큰 덩치가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산악대장의 무전기가 바빠지기 시작하며 결정의 기로에 섰다. 마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님 쥐가 난 다리를 이끌고라도 올라가야 하는가? 일단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배낭도 동료에게 넘겨주고 신발도 양말도 모두 벗었다. 맨발로 마지막 300m를 그렇게 올랐다.

무릎 부상 속 맨발 투혼...정상석 만지니 울컥

드디어 천왕봉 정상! 구름 속에 산봉우리가 뒤덮여 있어 경치가 보이지 않아도 정상석을 만지며 감격에 겨워 울컥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다. 천왕봉 정상석에서 산행기에 실을 사진도 촬영해야 했고 선두가 기다리는 곳으로 이동해 식사도 해야 했기에 모두 서둘러야 했다. 다행히 정상에 올라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다리근육도 많이 풀렸고 맨발로 내려가다 보니 발바닥도 많이 아팠던지라 다시 신발을 신고 배낭도 메고 내려가다 식사 중이던 선두와 합류해 늦은 점심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구름 속에 덮여있는 까닭에 한결 더 운치있게 우리를 맞아주던 세석봉 고사목지대를 지나 장터목산장을 거쳐 계곡을 타고 하산하던 중 멋진 폭포아래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지친 심신을 달래 주었다. 남들과 다르게 올라가는 산행보다 내려가는 산행이 더 쉬운지라 올라올 때와는 달리 줄곧 선두에 서서 하산하며 동료들의 격려와 염려를 안심으로 바꿔 놓았다. 내리막길에 취약한 동료의 배낭도 들쳐 메고 주차장까지 내려오면서 미끄러운 곳이 많았음에도 안전하게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이번 지리산 천왕봉 산행으로 자연 앞에 선 내 자신의 초라함도 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약조건을 이겨내고 천왕봉을 무사히 다녀왔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지리산계곡은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명성이 높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와 돌, 물이 어우러진 계곡이 한폭의 풍경이다.

덧붙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맨발로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간 사람은 저 뿐 일 것 같은 흐릿함도. 결국 지리산 천왕봉은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게 나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키우리와 함께 또 다른 추억거리를 기대해 보며 다음 산행을 기다려 본다. 키우리와 함께하면 왜 이렇게 행복할까!

/글=김은철 빛고을정신요양원 기획행정부장 /사진=이광호 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여름특선 녹차 굴비정식, 친환경삼계탕, 약오리전골/꼬리탕(찜)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영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매: www.megabox.co.kr
▶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군도:민란의 시대	15세
2관	드래곤 길들이기 2-3D(더빙)/허클리스	전체관람 15세
3관	해적:바다로 간 산적	12세
4관	명량	15세
5관	드래곤 길들이기 2(더빙)/명량	전체관람 15세
6관	명량	15세
7관	명량	15세
8관	해적:바다로 간 산적	12세
9관	명량	12세
10관	드래곤 길들이기 2(더빙)/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전체관람 12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명량	15세
2관	명량	15세
3관	명량	15세
4관	드래곤 길들이기 2-3D(더빙)/해적:바다로 간 산적	전체관람 12세
5관	군도:민란의 시대	15세
6관	뫼비우스의 띠/미션:임팩트/명량	전체관람 12세/15세
7관	드래곤 길들이기 2(더빙)/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전체관람 12세
8관	해적:바다로 간 산적	12세
9관	명량	15세
10관	드래곤 길들이기 2(더빙)/명량	전체관람 15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하남

"전 좌석 가족시트로 교체 고객만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메가박스전대